

G2 시대 일본의 대중(對中)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일본팀 연구위원
keiokim@kiep.go.kr

이형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김은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eunji@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격상함에 따라 G2(Group of Two) 시대가 전개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추진 이후 외자도입 본격화 및 시장경제 가속화, 그리고 2001년 WTO 가입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에 성공
 - 중국의 GDP 규모는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로 부상했으며, 2020년에는 미국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일본은 1972년에 중국과 수교를 맺은 후 이러한 중국의 성장세를 적극적으로 활용
 - 일본의 입장에서 중국은 2002년 최대 수입상대국, 2009년 최대 수출상대국으로 부상
 - 일본의 대중국 투자가 1990~2010년 사이에 연평균 15.4%씩 증가하면서, 일본은 다국적기업의 우회투자 경로인 홍콩을 제외하면 최대의 대중국 투자국으로 부상
 - 아울러 동아시아에서의 FTA와 통화·금융협력에 대한 역내 논의에서 일본은 중국과 경쟁 및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G2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로서는 동아시아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틈새에서 새로운 대외경제협력 정책을 수립하여 국익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바, 특히 대중 경제협력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 보고서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의미하는 G2 시대에 즈음한 일본의 대중국 경제협력을 분석하고 있음.
 - 중국의 WTO 가입과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같은 일본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와 기업이 대중국 경제협력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해왔는가를 고찰하고 있음.
 - 일·중간 경제관계의 변화 및 일본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을 다각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대중국 경제협력 방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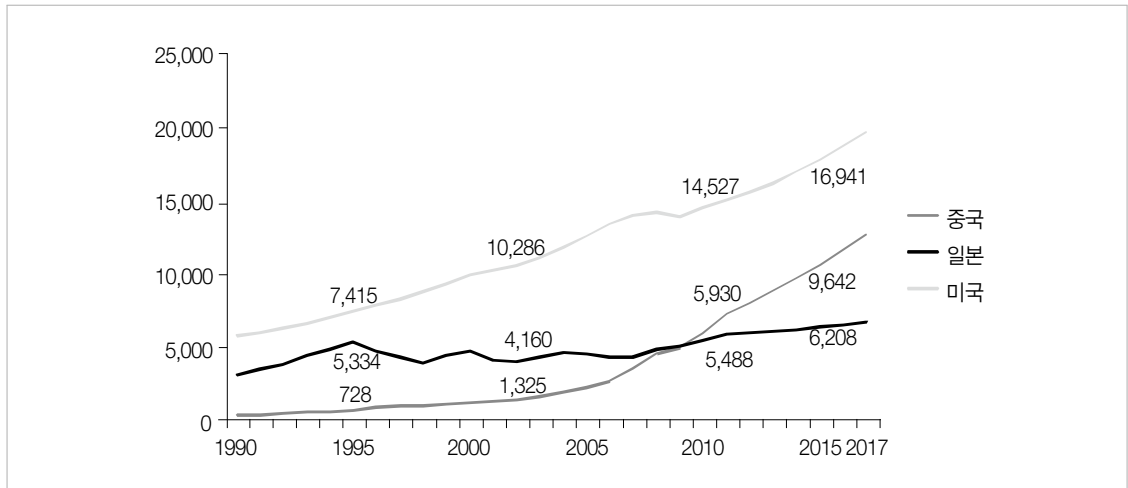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중국의 G2 부상과 일·중 경제관계의 변화

- 중국의 국제적 지위 격상을 중국의 GDP, 무역규모, 외환보유고 같은 경제지표는 물론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 동아시아 FTA 논의, 동아시아 금융협력이라는 다양한 경제적 관점에서 검토함.
 -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일본에게 중국경제는 어떠한 존재이며, 일·중 경제관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봄.

[그림 1] 미·중·일의 명목 GDP 추이 및 전망

(단위: 10억 달러, 경상가격 기준)



주: 2011년 이후는 IMF의 추정치.

자료: IMF(2012, 4),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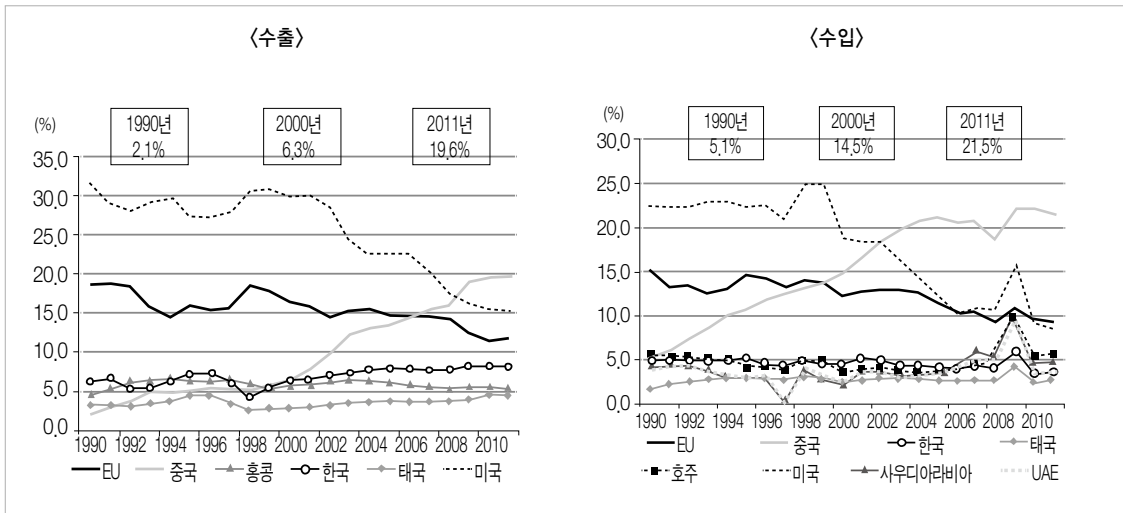
● 분석 결과

- 우선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일·중 간 경제관계의 변화는 무역과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일본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
- 그리고 일본 정부는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가 ASEAN을 중심으로 일본 엔화의 국제적 지위를 격하시킬 것으로 보고, 엔화의 통화스왑 확대나 사무라이채권 발행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FTA 추진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은 서로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음.
- 한편 동아시아 금융협력은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지만, 아직 중국 측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

2) 일본의 대중 무역구조 변화

- 일본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일·중 간 무역구조가 경쟁과 보완이라는 복합적인 상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분석
 - 무역구조의 변화와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품목별, 가공단계별, 중국 내수시장의 점유율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산업내무역지수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

[그림 2] 일본의 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대중무역의 비중



자료: CEIC 무역통계자료.

● 분석 결과

- 원재료와 가공제품간의 수직형 무역구조에서 가공제품간의 수평적 무역구조로의 변화가 뚜렷하고, 일본이 대중국 중간재 공급기지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이 일본의 최종재 수출대상지로 부각되고 있음이 주목
- 그리고 일·중 간 무역구조는 중국의 경쟁력 향상으로 경합관계가 확대되는 산업에서도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상호보완적인 산업내무역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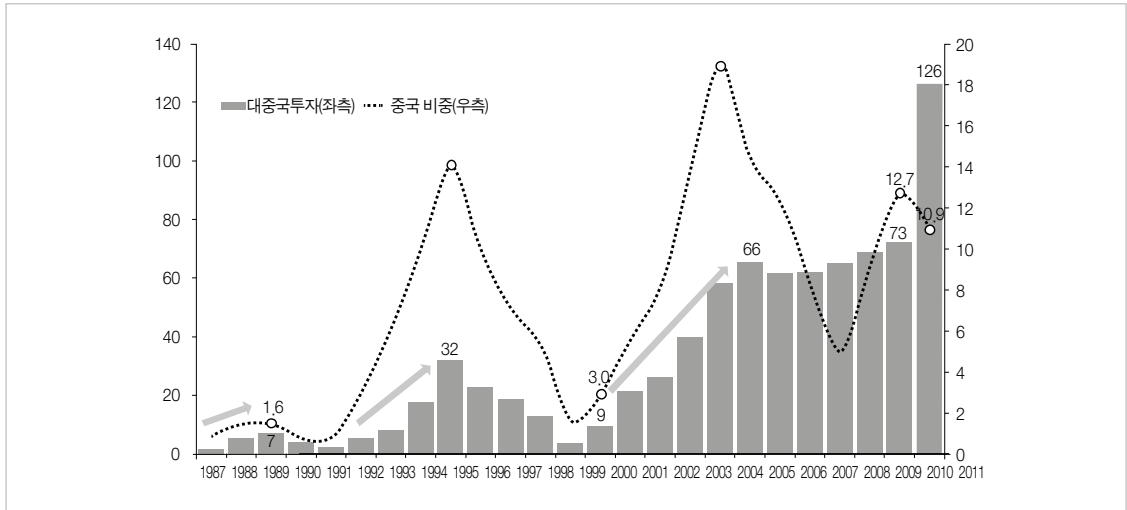
3) 일본의 대중 투자 현황과 전략

- 일본 기업의 대중 투자에 대한 특징 분석과 함께 일본 기업의 대응전략을 고찰

- 일본 기업이 실시한 대중 투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시기별 · 업종별 · 지역별 특징을 분석
-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
- 대중 투자의 위협요인에 따른 ‘중국 리스크’ 및 중국 정부의 외자유치 장려업종 분야에서의 ‘기회 요인’을 고려한 일본 기업의 대응전략을 살펴봄.

[그림 3]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



주: JETRO 홈페이지 통계에서는 국제수지 기준으로 1987년 이전의 현황이 없음.

자료: 日本貿易振興機構(JETRO) 홈페이지, 統計DB.

● 분석 결과

- 시기별로 일본의 대중 투자는 플라자합의 이후 엔고, 1990년대 중국의 외자도입 확대, 중국의 WTO 가입을 계기로 급속히 확대되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에 비제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동부 · 연해 지역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중부 · 내륙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중국에서의 신규설립 · 자본참가의 지속적인 확대와 함께 매출액도 증가하였고, 일본 기업의 경상 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 기업이 중국 현지 경영활동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본 기업들은 중국 리스크를 경감 · 분산하기 위해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과 같은 최적의 국제분업 체제를 고려하여, 중국의 성장세를 활용하면서도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동아시아 전체를 유망한 투자진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4) 일본 정부의 대중 경제협력

- 일본 정부의 대중 경제협력에서 ODA를 대신하여 새로운 경험의제로 부상하고 있는 에너지절약·환경 분야의 산업협력과 통화·금융협력이라는 분야를 선정하여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
 - 구체적으로 에너지절약·환경 분야의 산업협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분야, 중국 에코시티 공동 건설 협력 프로젝트, 그리고 기타큐슈시가 추진 중인 텐진과 다롄의 에코타운 개발 협력 프로젝트를 살펴봄.
- 분석 결과
 - 2006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일·중 에너지 절약·환경 종합포럼은 일본 정부가 양국 기업의 매칭과 비즈니스 고충 해결이라는 간접지원을 통해 자국기업의 대중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
 - 최근 일·중 양국 정부가 추진 중인 양국간 국제매입 확대와 무역결제에서의 엔화와 위안화의 직접교환은 아직 협력기간이 짧아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음을 확인

3.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 강구 및 중국과의 금융·통화협력 강화 필요

-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FTA나 위안화의 국제화, 금융협력 등 일련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중국이 일본을 위협함으로써 이 지역을 둘러싼 일·중 간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 이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양자간 및 다자간 FTA 논의에서 일·중 간 주도권 경쟁은 우리의 이니셔티브를 상당히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 우리로서는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와 협상 예정인 한·일 FTA와 한·중·일 FTA, 그리고 RCEP을 동시에 고려하여 동아시아 FTA 추진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관점에서 중국과의 금융·통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현 시점에서는 그간 통화스왑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협력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확대·발전시킬 것인지, 이 분야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기대할 수 있는 이

익은 무엇인지 논의를 심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할 것임.

2) 높은 대중무역 의존도의 완화 차원에서 수출다변화 모색과 함께 중국 내수시장 개척 확대가 필요

-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집중된 수출의존형 성장구조로 인해 중국 리스크라는 대외변수의 변화에 민감하므로 수출다변화 모색이 필요
 - 일본은 안정적인 내수기반 확보의 중요성과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통한 위험분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을 강화
 - 일본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시장인 아시아 신흥국의 수요를 획득하기 위한 사업전략을 수립하여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추세를 감안하면, 최종재 특히 소비재의 수출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
 - 우리의 대중 수출구조가 기존의 중간재·자본재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대중 수출의 지속적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국의 소비패턴 변화 정보 등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제공 확대, 현지 네트워크 활용 등의 노력이 요구됨.
- 한·중 간 부품소재 산업의 무역 원활화와 이러한 분업구조를 유지 또는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일·중 간 무역관계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산업별로 양국간 경합관계가 치열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보완적인 분업구조에 의한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심화·확대되고 있음.
 - 이는 중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부품소재 산업에서 기술력 부족으로 대일의존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
- 한·중 기업 간 협력 증대 등 새로운 산업협력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
 - 이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한·중 간 수출산업구조가 비슷해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

3) 신산업분야의 대중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력 강화가 필요

- 우리의 대중 투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 이유로는 중국의 투자환경 악화, 한국기업의 재중국 경영실적 악화, 한국의 대중 투자 포화상태 도달 등을 지적

● 우리의 대중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 무엇보다 대중 투자의 환경변화에 예의주시할 필요
 - 중국정부는 2006년 제11차 5개년계획을 계기로 선별적인 외자유치를 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업종별로는 비제조업에 대한 진출 확대를 모색
 - 중국에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중 투자는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음(2010년 누계금액 기준 72.3%).
 - 중국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로 시장규모의 확대가 기대되는 헬스케어·교육서비스·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진출을 모색할 필요
- 지역별로는 중서부 지역에 대한 제조업 진출을 활성화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해 있으며, 중서부 지역에 대한 진출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먼저 이 지역에 진출하여 입지를 강화하고, 현지의 기업들과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차세대 자동차산업과 같은 신산업 분야에의 진출 고려
 - 중국에서는 2030년에 차세대자동차의 신차 판매대수가 전체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할 것으로 추정
 - 이 분야 진출 시 유력한 현지기업 확보 및 기술유출 리스크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임.
- 중국 리스크의 대응 차원에서 차이나 플러스 원(China+1) 전략을 추구할 필요
 - 선별적인 외자유치, 노동비용 상승과 같은 대중투자 환경변화는 일본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에도 적용되는 문제
 - 중국 리스크 분산을 위한 제3국 진출 시 투자환경을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비교·검증하는 것이 중요
- 정부 차원에서는 신산업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가시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대중투자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중국정부의 방침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정책지원이 요구

4) 대중 산업협력 차원에서 우리기업의 진출지원책을 강구

- 2008년 대중 ODA 공여 종결과 함께 일본 정부가 모색한 대중 경험강화 방안은 에너지절약·환경분야의 산업협력 강화이며, 또한 2011년부터는 일·중 금융협력이 새로운 경험의제로 부상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대중 산업협력 차원에서, 우리 기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 시장여건 상 해외진출이 필요하고, 진출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다만, 이와 같은 산업협력이 2~3년 내 단기적으로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내 지원체계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특정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중국 관련인사의 초청 연수와 국내 전문가의 중국 세미나 개최, 민관합동 포럼 개최,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펀드조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